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한 2년

박영숙 본회 전 총재

‘사랑의 친구들’의 시작은 계획된 일이 아니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은 6.25에 버금가는 국난으로 다가온 IMF 경제위기와 유례 없는 수재로 인한 많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을 외면할 수 없는 상황에 떠밀려서 탄생되었습니다

사랑의 친구들의 명예총재인 이회호 여사는 원래 야당 정당 총수의 반려자로서의 오랜 세월 사회봉사자로서 ◦ 옷의 아픔에 동참해 온 터였습니다 한나라의 영부인으로서 국민이 겪는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일에 나선 것은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었지요. 무엇보다도 가슴아파하신 것은 점심을 굶고 수업을 받아야 하는 아이들의 배고픔이었습니다

그래서 궁리해낸 것이 휘호를 쓰고 도자기를 구워서 바자회를 여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사를 청와대 부속실의 기능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이래서 외곽에서 일을 돕는 기구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막상 기구를 만들려고 하니 영부인으로서의 행보는 쉬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영부인들이 전개한 사회복지를 위한 좋은 일들이 긍정적인 평가만을 받는 것이 아니어서 ‘사랑의 친구들’을 보는 눈도 단순하지 않았습니 다 전례에 의거 무엇보다 주변에서 걱정한 것은 어려운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는 모금을 해야 하는데 그 과정에서 잘못된 오해를 살 우려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망설이고 있는 사이 미주에 거주하고 있는 한국의 어머니들이 먼저 ‘나라사랑 어머니회’를 조직하고 조국의 결식아동들을 돕는 일에 발벗고 나섰습니다 그리고 ◦ 곳에 그들의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창구의 설치를 촉구했습니다 현재 이 조직이 최초로 전미주에 지부를 가지는 한국여성단체로 성장한 것은 정말 의미있는 일입니다

‘사랑의 친구들’은 당면한 현안 문제들을 위한 목적별 모금을 하는 한편 성금을 그 문제를 다루고 있는 기관들에게 즉각 배분해서 그 목적대로 전액 사용하도록 하고 재단법인 ◦ 아닌 사단법인체로 출범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친구들 ◦ 철두철미 유념한 것은 모금과 배분 활동에 있어서의 투명성 확보였습니다

지난 2년 간 사랑의 친구들 ◦ 한 일은 ①결식 아동 돕기 ②실직 여성 가장의 창업지원 사업 ③연말연시 떡국 나누기 ④사랑 나누기 운동으로써의 의료지원 및 생계지원 활동 ⑤외국인 노동자 컴퓨터마련 지원활동 ⑥북한 어린이 지원사업 등이었습니다

영부인이 앞장선다고 해서 문제의 전부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2년 간 경험에서 보면 문제성의 사회여론화를 통해 많은 사람들이 문제해결을 함께 하는 촉발제가 되고 나아가서는 정부가 정책화하는데 있어 그 영향력이 남다르다고 하는 차이가 있을 뿐이었습니다 다행인 것은 사랑의 친구들 ◦ 사각지대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호소할 수 있는 하

나의 창구 역할을 했고 또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친구들’의 총재로서의 그 동안의 저의 소임은 명예총재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의 실무를 담당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의적일 수밖에 없었던 ‘사랑의 친구들’의 일이 쉽지만은 않았습니

그러나 지금까지 앞서 제시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든든한 울타리 역할을 하여주신 고문님들, 중추적인 지도력을 발휘해 주신 이사님들,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본회를 이끌어주신 운영위원님들, 성금을 목적사업에 전액 투입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운영비를 전담해주신 후원회원님들, 이사회에서 결의해주신 사업들을 기획하고, 집행한 것을 평가하는 등의 활동의 내용을 충실하게 하는데 기여하신 기획자문위원님들, 그리고 수많은 성실한 자원봉사자님들, 그리고 분담된 업무를 충실히 담당한 실무자들을 포함한 모든 분들의 헌신적인 노력의 결과였습니다

2년 간 ‘사랑의 친구들’의 실무책임자로서의 소임을 마치고 이제 ‘한국여성기금’의 일과 저의 본 업무인 환경관련업무에 복귀하면서 되돌아보면 저의 능력의 한계로 모든 분들의 기대에 못 미친 것이 아쉽고 죄송스럽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그러나 저에게 있어서 ‘사랑의 친구들’과 함께 한 경험은 제가 남은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새로운 길잡이가 되어줄 만큼 중요하고 귀중한 것이었습니다 저에게 베풀어주신 모든 분들의 따뜻함, 너그러움 그리고 경륜 높은 지도에 대해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의 친구들의 일은 제가 이 나라의 영부인인 이회호여사와 함께 한 1950년대 YWCA에서의 여성운동을 비롯해서 80년대의 민주화운동, 인권운동 등에 이어진 또 한 토막의 사회봉사활동으로서 저에게는 큰 의미가 있습니다

기뻐던 것은 세상의 한 쪽에서 걱정하는 것처럼 세상은 차갑지만은 않았다는 것과, 기회가 주어지고 장이 마련되면 따뜻한 정을 나누어줄 준비된 사람들이 곳곳에 자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된 것이었습니다 시간과 돈을 내주면서 기쁨과 보람을 느끼는 많은 분들은 주변을 훈훈하게 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랑의 친구들’은 사랑을 필요로 하는 많은 사람들과 사랑을 베풀고자 하는 선한 사람들의 교량역할을 담당함으로써 따뜻한 세상을 만드는 일에 기여하기를 기원합니다